

Best Paper of Next Generation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연구

A Study of Plato's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박 서 형*

Seohyung Park

초록 이 논문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내재된 딜레마를 해결하고, 그 의의와 가치를 밝히는 연구이다. 플라톤의 사상은 인류지성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교육사상 중 하나로 존재해 왔으나, 그 실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플라톤의 대화편 텍스트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의 핵심이 철학자가 주도하는 음악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밝힌다. 현시대에 학교 음악교육의 인문적 성격이 점점 희석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음악교사의 자격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학교 음악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플라톤, 음악교육, 에토스론, 음악교사, 음악교육철학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to point the way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Plato's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His ideas face tantalizing problems at the first stage of its realization: 1) Who gives lessons in music? 2) Who composes and plays the music? The close text analysis will show that the music education should be practiced not by musicians but by philosophers. Moreover, Plato's view, which asserts the absolute status of music education, can provide us a firm philosophical foundation and a proper prerequisite for the self-esteem of music teachers.

Key words: Plato, music education, *Ethos*, music teacher, philosophy of music

* Corresponding author, E-mail: gyum2hyun2@gmail.com

Student Researcher(Ph.D. degree co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 207-2, 9-dong, 599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플라톤은 인류지성사에서 음악교육의 가치와 당위성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논의를 제기한 인물이다. 게다가 그의 음악교육사상이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현대에 이르러 분과학문으로 독립한 음악교육학이 과거의 전통과 단절된 채 수립된 것이 아닌 이상,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¹⁾

그러나 그의 사상을 일관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플라톤이 의무교육으로서의 음악교육과 음악가 추방을 동시에 주장함으로써 음악교육의 주체와 음악교사의 자격에 대한 딜레마를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학술적인 해명의 시도는 아직 없는 실정으로, 본 논문에서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이 딜레마의 해결을 시도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시사점까지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특성상 문헌 연구를 방법론으로 채택한다. 첫째, 플라톤의 『국가』 2, 3권에서 음악교육론을 추출하여 정리하고 분석한 후, 그가 음악교육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 이유와 의미를 고찰한다. 둘째, 『국가』편 10권의 ‘음악가추방론’을 분석하여 2, 3권의 음악교육론과 연결한 후, 여기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본 논문이 해결해야 할 주된 목표로 설정한다. 셋째 이와 관련된 플라톤의 논의가 발견되는 『법률』, 『이온』 등 『국가』편 이외의 대화편들에서 해당 논의를 추출하여 분석한 후, 이를 다시 『국가』편의 논의와 연결하여 해결을 모색한다. 끝으로, 논의를 정리하며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일관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의의와 시사점을 밝힌다.

2. 선행연구 고찰

1) 서양고전철학계의 연구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인식하고 해결을 시도한 학자들

1) 본 논문에서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는데, 이는 플라톤이 음악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논문이나 저술을 남겼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편을 비롯한 여러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 또는 아테네인의 입을 빌어 플라톤 자신의 음악교육관을 피력한 부분들을 종합한 것에 가깝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중 대표적인 인물은 E. Havelock(1963, p. 10)이다. 그는 플라톤이 실제로 모든 음악가들을 비판하고 배척한 것은 아니며, ‘음악가추방론’은 당시 그리스의 전반적인 문화 상황을 비난하는 사회비평에 가깝다고 해석하였다. 국내에서도 서승원(Suh, 1993, p. 158, 1992, p. 67), 권혁성(Kwon, 2012a, p. 44), 송유레(Song, 2014, p. 60) 등 Havelock의 해석을 따른 학자들이 상당수 있다. Havelock과 그의 지지자들의 해석을 적용한다면, 플라톤은 당대의 음악에 좀 더 높은 도덕적 요구를 한 셈인데, 이러한 해석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우리는 당시의 음악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고대 그리스 무시케²⁾의 대표적인 장르인 비극만 하더라도 플라톤 당시의 비극작품 중 단편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전해지는 작품이 단 하나도 없다(Suh, 1993, p. 143). 따라서 Havelock의 해석은 추정일 뿐, 그 근거는 빈약하다. 둘째, 『국가』 10권에서 플라톤은 ‘모든’ 음악가들의 행위를 본질적으로 모방적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당대의 음악가들을 선별적으로 배척하였다는 해석은 텍스트에 근거가 없다.

Havelock과는 달리 J. Annas(1998, p. 282)는 『국가』 10권의 음악가추방론을 근거로 플라톤이 모든 음악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여 그 가치를 훼손시켰고, 음악을 근본적으로 하찮게 보았기에 이렇게 강경한 주장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일 Annas의 의견대로 플라톤이 음악을 과소평가하였다면, 왜 플라톤은 『국가』 2, 3권에서 모든 어린이에게 음악을 최우선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왜 그는 음악교육에 그렇게 세부적인 선별의 지침을 내리고, 음악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기하고 있는가? Annas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약점을 보인다.

2) 국내 음악교육학계의 연구

2020년 10월 22일 기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국내 논문은 현재까지 23건의 석사학위 논문과 3건의 학술지 논문이 집필되었다. 이 중 전호철(Jun, 1985), 김춘미(Kim, 1993), 김정자(Kim, 1994), 안은진(An, 1997), 방희정(Bang, 1998), 강연주(Kang, 2010) 등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2) 본 논문에서 ‘음악’으로 번역하게 될 고대 그리스의 무시케(mousike)는 오늘날 서양언어에서 ‘음악’을 가리키는 music(영), Musik(독), musique(불) 등의 어원이 되고 있으며, 원래 뮤즈 여신들(the Muses)의 활동 전반을 나타내는 말로서 플라톤이 활동하였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음악에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았고, 음악과 문학이 결합된 형태였다고 한다(Grout, 2009, p. 34; Halliwell, 2011, pp. 308-309). 예를 들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읊송하는 음유시인들은 시문학을 가사로 삼아, 리라의 반주에 맞추어 운율을 붙여 노래하였고, 이는 오늘날 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시낭송과는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언급하는 고대 그리스의 음악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무시케(mousike)에 해당하며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음악이 아니라 음악과 문학이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된 형태라는 점과, 번역본에서 ‘시인’, ‘poet’으로 지칭하는 부분을 ‘음악가’로 옮긴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에 대한 단순한 소개와 안내에 주력하는 논문들이 있는가 하면, 김종부(Kim, 1986, 1990), 이미라(Lee, 1993), 김경애(Kim, 1989), 백수안(Baek, 2006), 이선채(Lee, 2007, 이화선(Lee, 2009)은 공자, 프뢰벨 등 다른 이들의 음악교육사상과의 비교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정원(Yu, 1995), 문영수(Moon, 2000), 문택석(Moon, 2001), 김후량(Kim, 2003), 손효선(Son, 2008), 박인애 (Park, 2010), 임영희(Lim, 2011), 권지혜(Kwon, 2012), 조향숙(Cho, 2013), 박현구 (Park, 2009), 김경희(Kim, 2010), 이영리(Lee, 2010) 등이 플라톤의 에토스론을 바탕으로 학교음악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문택석(Moon, 2001)과 임영희(Lim, 2011)가 교사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문택석(Moon, 2001)은 주로 교과목과 교사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치중하고 있으며, 임영희(Lim, 2011)는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서 누가 음악교사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딜레마의 해결에 대한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연구의 추세대로 학교 음악교육의 가치가 개별교과의 지식 전달 차원을 넘어 전인 교육의 실현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그 중요한 철학적 배경이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라면, 시사점에 대한 언급에 앞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딜레마의 해결이 시급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 딜레마의 해결을 시도하며, 더 나아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선명한 이해를 도모한다. 궁극적으로는 본 논문을 통해 학교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옹호하는 이론적 배경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분석

1.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 『국가』 2, 3권 분석

플라톤의 대화편 국가의 중심 논의는 이상국가 건설이며, 이중 절반 가까이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교육이다. 이는 음악교육(2, 3, 10권), 체육교육(3권), 그리고 철학, 수학, 변증술교육(6, 7권)으로 세분화된다. 그리고 그는 음악을 가장 먼저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lato, 2013, pp. 123-124). 그가 음악교육에 최우선의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대단히 본질적이다. 플라톤에 따르면, 체력단련에 앞서 음악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어린이들의 신체 형성보다, 영혼의 형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

시기의 영혼에는 어떤 것이든 일단 흡수되면 각인되어 버린다고 한다. 여기에서 플라톤은 마치 인간을 형성해나가는 일이 곧 영혼을 형성하는 일과 다름없고, 영혼이 신체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영혼이 곧 인간의 자아이며, 신체는 영혼의 지배를 받는 도구라는 그의 지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Kang et al., 2013, p. 344).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단일체가 아닌 세 부분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생각하였고, 이 셋은 이성적인 부분, 감정을 표출하는 부분, 신체적 욕구를 표출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Plato, 2013, pp. 241-242). 그리고 이 셋 중에서 어떤 부분이 영혼의 주도권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성적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말초적인 욕구만을 좇아 사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플라톤은 이성적인 부분이 주도권을 차지하는 경우를 영혼의 조화, 영혼의 건강이라고 보았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았다(Plato, 2013, pp. 258-259). 따라서 음악교육은 인간의 형성에서 첫 단계를 차지해야만 한다. 다만, 어린 이들이 무분별하게 아무 음악에나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검열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검열은 음악의 내용과 요소, 그리고 악기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이것이 곧 이른바 에토스론(Doctrine of Ethos), 즉 노랫말과 선법, 리듬, 악기가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이다.³⁾

1) 가사의 검열

먼저 제시되는 검열의 대상은 당시 음악의 내용, 즉 가사에 해당하는 신화이며, 플라톤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는 거짓을 배척하는 것이며, 둘째는 신화의 문체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첫째, 플라톤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들을 비롯하여 예전부터 노래되던 신화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들려주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Plato, 2013, pp. 125-128). 그는 ‘거짓’으로 점철된 당시의 신화를 거부하고, ‘올바른’ 종교관에 기초한 신화의 지침을 내린다. 즉, 신은 선하며, 선의 원인으로만 제시되어야 하고(Plato, 2013, pp. 124-132), 이리저리 모습을 바꾸지 않는 불변의 존재이며(Plato, 2013, pp. 132-135), 어떠한 속임수와도 연루되지 않은 존재로 그려져야만 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얻을 수 있는 미덕은 용기, 자제력, 진리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절제(Plato, 2013, pp. 140-157)이다. 동시에 그는 거짓 신화들의 사례들을 든 다음, 이런 신화들을 이상국가에서 허용할

3) 고대 그리스의 에토스론 전반에 대해서는 김후량(Kim, 2003, pp. 6-31), Grout(2009, pp. 35-36), 민경훈 외(Min et al., 2010, pp. 20-21, 51-52), Bowman(2011, pp. 52-76), 민은기 외(Min et al., 2014, p. 10)를 참고.

수 없다고 주장한다(Plato, 2013, p. 132).

둘째, 신화의 문제이다. 신화의 문제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작가는 자신의 입장에서 3인칭으로 서술하기도 하며, 때로는 등장인물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여 전달하기도 한다. 플라톤은 전자를 단순한 서술로, 후자를 모방을 통한 서술로 정의한다(Plato, 2013, p. 157). 이때 플라톤이 문제 삼는 것은 후자이다. 즉, 음악가는 신화의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훌륭한 사람의 말투를 흉내 내며 노래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상황을 노래해야 할 때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음악가는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등장인물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고, 모방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 모방의 대상을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들로 제한하려고 한다. 수치스러운 태도를 모방하는 것이 영혼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이다(Plato, 2013, pp. 163-164).

이처럼 플라톤은 음악의 내용을 이루는 신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용의 문제와 문제의 형식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두 요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신화가 올바른 내용과 문체를 갖추어야 한다는 하나의 도덕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에 대한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선법과 리듬, 악기의 검열

플라톤은 구체적인 선법을 열거하며 이것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역설한다.⁴⁾ 그는 영혼을 나약하게 만드는 애도와 비탄을 담은 신화를 배제하자던 주장에 이어 애도와 비탄에 걸맞은 선법도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지목되는 선법은 혼성 리디아 선법(Mixolydian)과 고음 리디아 선법(Syntonolydian)이다. 또한 이 오니아 선법(Ionian)과 리디아 선법(Lydian)은 영혼을 유약하고 나태하게 만들기 때문에 배제하자고 한다(Plato, 2013, p. 170). 반면, 도리아 선법(Dorian)과 프리지아 선법(Phrygian)은 절제와 용기의 덕을 함양하므로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lato, 2013, pp. 170-172). 선법에 관한 논의를 마친 후, 플라톤은 리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절제와 용기를 함양하는 리듬만을 남겨둘 것을 주문한다(Plato, 2013, pp. 171-174).

이렇게 음악교육에 필요한 선법과 리듬을 엄격하게 제한한 이상, 다양한 선법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불필요해진다. 따라서 플라톤은 당시의 악기들 중 삼각 하프

4) 하모니아(harmonia)는 고대 그리스의 선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테트라코드(tetrachord)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7종류의 음계를 뜻한다. 고대 그리스의 선법체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조경아(Cho, 2010, pp. 73-82), West(1994, pp. 161-221), 리듬체계에 대해서는 Landels(1999, pp. 110-129)를 참고.

(trigonon)나 보통 하프(pektis) 등 현이 많고 여러 선법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Plato, 2013, pp. 171-172). 또한, 음역이 넓고 음계 패턴의 급격한 변화와 피치의 미묘한 변화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Strunk 2002, p. 12, n. 12) 피리(Aulos) 역시 다양한 선법을 연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악기로 지목되어 배제된다(Plato, 2013, p. 172). 따라서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사용될 악기는 리라(lyre)와 기타라(Kithara) 정도만이 남게 된다. 플라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위에서 지목된 해로운 악기들을 제작하는 장인들까지도 이상국가에서 추방해야한다고 주장한다(Plato, 2013, pp. 171-172). 플라톤은 하프와 피리를 만드는 악기장인들이 남아있는 이상 악기의 생산 가능성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며, 그렇다면 해로운 선법을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러한 악기장인들을 추방함으로써 이상국가의 시민들의 영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3) 음악교육의 목적

플라톤이 제시한 음악교육의 목적은 결국 인간의 영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Plato, 2013, pp. 176-178). 이상국가에서 실시될 음악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위에서 살펴본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첫째, 어린이들이 훌륭한 영혼을 갖추도록 가장 먼저 음악교육을 실시한다. 둘째, 노랫말이 되는 신화는 진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용기, 자제력, 절제력을 함양한다. 셋째, 신화의 문체는 단순한 서술이 권장되나, 모방적인 문체를 사용할 경우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들만을 모방의 대상으로 제한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덕을 모방하도록 유도한다. 넷째, 선법은 도리아 선법과 프리지아 선법에 한해 사용하고, 이에 어울리는 좋은 리듬을 붙여 어린이들이 용기와 절제를 함양하도록 한다. 다섯째, 악기는 리라와 기타라로 한정한다.

물론 플라톤의 강력한 도덕적 요구로 인해 음악의 내용과 요소, 악기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국가에서 음악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한 개별 과목의 담당자가 아닌, 인간의 영혼 형성을 책임지는 중요성이 부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음악가 추방론

『국가』 2, 3권에서 음악에 대한 선별적인 검열을 주장하였던 플라톤은 『국가』 10권

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모든 음악가들을 이상국가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테크네(technē)’는 어떤 실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한다(Kang et al., 2013, p. 503).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일례로, 목수는 침대가 무엇인지 알고 침대를 만든다. 그렇다면 화가나 음악가에게도 이러한 지식이 있을까? 이것이 바로 『국가』 10권 초입에서 던져지는 질문이며, 플라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유는 예술가가 자기 작품의 대상에 대해 본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플라톤은 침대를 예로 들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침대가 있다고 말한다. 먼저, 신이 만들어낸 이데아로서의 침대가 첫 번째 것이다. 그리고, 이 침대의 이데아를 본 삼아 목수가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는 침대는 두 번째 것이다. 끝으로 이 침대를 보고 화가가 그린 침대가 세 번째 것이다(Plato, 2013, p. 542). 다시 말해, 이데아를 의식하고 목수가 제작한 침대(1차 모방)를 보고 그림을 그린 화가의 작품(2차 모방)은 진리, 즉 침대의 이데아로부터 두 단계나 떨어져 있는 저열한 것이 된다. 따라서 화가는 침대에 관한 한 침대를 만든 목수보다 지식이 없지만, 그의 교묘한 그림 솜씨를 통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허상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플라톤은 지적한다(Plato, 2013, pp. 540-546). 그러나 이것은 음악가 전체를 비난하기 위한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국가』 10권 전반부의 주제가 화가에 대한 공격이 아닌, 음악가에 대한 공격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곧이어 플라톤은 화가를 공격한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음악가들을 공격한다(Plato, 2013, pp. 545-553). 화가가 침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음악가 역시 자신이 노래하는 시의 내용에 대해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음악가 역시 화가와 마찬가지로 진리(이데아)에서 두 단계 떨어진, 모상의 모방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논리에 따르면, 훌륭한 이데아(진리)가 있고, 훌륭한 사람은 이것을 본받아 자신의 삶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음악가는 이런 사람의 영웅담을 노래하는데, 음악가가 아무리 뛰어난 솜씨로 훌륭한 사람들의 행위를 노래하더라도 음악가 본인은 도저히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의 삶의 깊이와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메로스가 아킬레우스의 영웅적인 행위를 아무리 근사하게 노래한다 해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지휘할 수 없는 것이고, 잘 만든 사물에 대해 노래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만드는 법을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실용적인 기술에도 공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음악가의 행위를 모방으로 규정한 플라톤은 이제 모방의 악영향에 대해 역설하고 이상국가에서 음악가를 추방하자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한다(Plato, 2013, p. 542). 이유는 첫째, 이들의 행위가 모방적이고 둘째, 이러한 모방이 영혼의 열등한

부분인 감정과 욕구를 자극하고 부추김으로써 영혼의 가장 훌륭한 부분인 이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음악가가 노래하는 희노애락 전반에 관한 감정적인 욕구를 영혼의 열등한 부분의 욕구로 바라보며, 이러한 음악에 노출되다 보면 사람은 어느새 그것을 따라 하게 되고, 이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한다(Plato, 2013, pp. 560-562). 플라톤이 바라보는 음악가는 진리(이데아)와 멀리 떨어진 모방행위에 종사하는 자이며, 따라서 음악가의 행위에는 이성이 개입할 여지가 그만큼 적다. 오히려 이성으로 다스려야 할 여러 감정을 부추김으로써 영혼에 해를 입히는 사람인 것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 즉 이성이 영혼의 감정과 욕구를 통제하는 상태를 영혼의 건강과 인간의 행복이라고 여겼으며, 이러한 그에게 비이성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음악가들의 존재는 인간을 사악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위험요소가 되는 것이다(Plato, 2013, p. 562).

III. 딜레마에 관한 논의와 해명

1. 두 가지 딜레마

지금까지 살펴본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단일하고 일관된 주장으로 정리하여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다.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딜레마를 만나게 된다.

첫째, “음악은 누가 교육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우리는 『국가』 2, 3권에서 영혼의 형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음악교육에 대해 역설하던 플라톤의 주장을 기억한다. 그러나 『국가』 10권에 이르러서는 음악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음악가들이 모두 배척되고 만다. 게다가 고대 그리스는 현대와는 달리 음악가와 음악 교사가 직업적으로 분리된 사회도 아니다. 여기서 부딪히는 첫 번째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음악교육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모든 음악가가 추방되고 나면 이러한 음악은 누가 교육하는가?

둘째, “음악은 누가 만들고 연주하는가?”라는 문제이다. 모든 음악가들을 추방하자는 플라톤의 주장은 자칫하면 음악 자체를 추방하자는 주장으로 오해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플라톤의 주장은 모든 음악가를 추방하되, 음악 중에서는 모방적인 것을 허락하지 말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음악으로는 신에 대한 찬가와 훌륭한 인간에 대한 송가 등 이상국가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Plato, 2013, p. 563). 플라

톤이 허용하는 음악, 즉 모방적이지 않은 음악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음악은 과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만일 그런 음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음악가가 만든 음악은 아니어야 한다. 플라톤은 『국가』 10권에서 음악가는 본질적으로 모방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음악 역시 모방적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두 번째 딜레마는 다음과 같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는 신에 대한 찬가와 훌륭한 인간에 대한 송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음악은 누가 만들고 연주하는가?

2. 딜레마의 해명

이 두 가지 딜레마 앞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해석의 어려움은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 김남두(Kim, 2007, pp. 73-75)가 이를 두고 해결할 수 없는 불일치라고 주장한 것이 좋은 예이다. 또 어떤 학자는 『국가』 10권의 플라톤의 강경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며, 『국가』편 내부의 다른 논의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h, 1992, pp. 61-65). 본 논문은 플라톤에게 음악은 독립된 개별교과가 아니며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을 계발하는 철학훈련의 첫 단계라는 점에 주목한다.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이성과 지식의 문제에 깊이 연관되었기에 위의 두 가지 딜레마 역시 이러한 플라톤의 지식관과 연계하여 고찰해야 한다.

1) 플라톤과 전문가주의

플라톤의 또 다른 대화편 『크리톤』에서는 사형을 언도 받고 수감 중인 소크라테스에게 친구 크리톤이 와서 탈옥을 권유한다. 소크라테스는 이성의 힘을 믿는 철학자답게, 탈옥이 아무리 친구의 권유라 할지라도 이성적인 추론의 과정을 거쳐 가장 좋은 것으로 판명되는 원칙에 복종하겠다는 지론을 펼친다(Plato, 2020b, pp. 27-28). 여기서 그는 운동선수의 예를 든다. 운동선수는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식이요법을 행하고 훈련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무시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른다면 몸을 망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다수의 판단보다 전문가 한 사람의 판단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Plato, 2020b, pp. 30-31). 이어 플라톤은 전문적인 지식을 따르는 일이 도덕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설령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도덕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의 판단이다. 의사의 충고를 무시할 때 몸을 망치게 되듯이, 이 판단을 무시하면 영혼이 파괴된다. 그리고 이것은 몸을 망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으로 묘사된다. 플라톤에게 자아란 몸이 아닌 영혼이기 때문이다(Plato, 2020b, pp. 32-33).

플라톤은 이러한 논변을 통해 우리에게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방면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의 조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가구에 관한 문제라면 목수의 조언을 따르고, 운동의 훈련이나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체육지도자와 의사의 조언을 따라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문제, 즉 영혼을 돌보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하나는 문제가 도출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이 대화편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에 평생 매진하였던 스승 소크라테스를 이상적인 철학자의 본보기로 세워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사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학을 신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에게 복종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철학하는 일, 즉 영혼을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고 주장한다(Plato, 2020a, pp. 72-73). 플라톤의 철학은 영혼을 돌보는 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Kang et al., 2013, p. 343).

2) 지식이 결여된 음악가: 『이온』 분석

전문가주의에 따르면, 음악교육에 대해 논의할 때에도 이 분야의 전문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플라톤은 음악가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음악가에게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 논의는 또 다른 대화편인 『이온』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온』은 음유시인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음악가 이온과 소크라테스가 나누는 대화로 구성된다. 이온은 관객들 앞에서 호메로스의 시를 리라나 기타라의 반주에 맞추어 아름답게 암송하는 가수였고, 당시 그리스 최고의 음악가로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었다(Plato, 2014, p. 39). 소크라테스는 이온이 호메로스의 서사시 음송만을 잘하는지, 다른 시인의 음악도 잘 음송할 수 있는지를 묻는데, 이온은 호메로스만을 잘한다고 대답한다(Plato, 2014, pp. 14-15). 그리고 플라톤은 음악가의 전문지식을 부정하기 시작한다. 만일, 이온의 재능이 전문지식에 기반한 기술이라면 이온은 위대한 음악가의 작품을 청중에게 전달해주는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Plato, 2014, pp. 13-14). 그런데 전투, 항해술 등 호메로스가 다루는 동일한 주제를 다른 음악가가 다루는 경우는 많다. 또한 음유시인이라면 모든 경우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온은 호메로스의 경우에만 정통할 뿐 다른 음악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무지하므로 이온의 재능은 전문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취지이다(Plato, 2014, pp. 18-19). 게다가, 이온은 호메로스 시에 거론되는 전투, 항해술

등의 개별적인 기술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비유하자면 이는 마치 드라마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배우가 실제의 법률에 무지한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앞서 플라톤이 음악가를 본질적으로 모상의 모방자, 진리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모방자라고 규정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 주장은 『이온』편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온과 같은 음악가의 능력이 지식에 기반한 기술이 아니라면, 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플라톤은 이를 ‘신들린 상태’로 규정한다. 즉, 뮤즈 여신의 힘이 작곡가에게 전해지고, 이것이 연주자에게 옮겨져 최종적으로 관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Plato, 2014, pp. 22-23). 말하자면, 마치 점신한 무당이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듯이, 신들린 상태에서 연주하는 음악가는 자신이 노래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다(Plato, 2014, p. 24). 따라서 음악가의 능력은 지식과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이 결여된 것이다.

3) 철학자의 입장에서 본 음악교사

우리는 『크리톤』편에서 판단의 주체는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몫이라는 플라톤의 전문가주의를 살펴보았고, 『이온』편에서는 음악가는 지식이 결여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가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음악교육 역시 이 분야에 정통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나, 우리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기대하는 음악가의 전문성은 플라톤에 의해 부정되었기 때문에 음악교육은 음악가가 아닌 다른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딜레마, 즉 모든 음악가가 추방되고 나면 음악은 누가 교육하느냐는 문제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이 철학자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근거를 들어 논증할 것이다.

(1) 음악교육의 목적

플라톤의 음악교육의 목적은 영혼을 조화롭게 형성하는 것이며, 이때 영혼의 조화란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감정, 욕구 중에서 이성이 나머지 둘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한다. 플라톤이 감정과 욕구를 자극하는 노랫말과 선법, 리듬을 배척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이 음악가들을 이상국가에서 배척하는 이유도 이러한 음악교육의 목적을 염두에 둘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들의 행위는 모방적이며, 이러한 모방이 영혼의 열등한 부분인 감정을 자극하고 부추김으로써 영혼

의 가장 훌륭한 부분인 이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플라톤에게 음악교육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혼의 조화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철학자의 몫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는 일이 철학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2) 음악에 대한 지식

플라톤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선보였다. 그런데 이 대화의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 소크라테스는 이데아를 포착하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자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특정한 주제를 놓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지식을 제시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소크라테스는 여러 대화편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이 잘 모른다면 무지로 일관하고, 자신은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대답하도록 유도한다. 상대방은 자신의 지식을 선보이지만 소크라테스는 반론을 통해 상대의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보이고, 이러한 문답이 반복되며 결국 상대방도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음이 드러난 상태에서 대화편이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Kang et al., 2013, pp. 290-293). 그러나 언뜻 허무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대화의 구조는 인간이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이데아, 즉 참된 진리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지식이 사실 결함이 많은 것이라는 자기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된다. 당장 정답을 얻을 수는 없더라도, 더 나은 지식에 도달하려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현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추구하게 되며, 이것이 곧 철학자의 삶이 된다(Plato, 2020a, p. 159). 따라서 소크라테스로 대표되는 이러한 이상적인 철학자는 자신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고, 힘들게 얻은 지식조차도 끊임없이 검토하고 성찰하는 것을 삶의 핵심적인 가치로 삼았다(Plato, 2020a, pp. 170-171).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플라톤이 음악에 대한 지식을 확신에 찬 어조로 선보이는 『국가』 2, 3권의 장면은 이전 대화의 방식과는 사뭇 다르게 보여진다. 여기서 그는 노랫말과 선법, 리듬, 악기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자신의 지식을 선보이고 주저 없이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문제시되는 노랫말들은 무려 33회에 걸쳐 직접 암송하여 인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플라톤이 젊은 시절 비극작가가 되고자 하였고, 자신의 작품들을 논문 형태가 아닌 비극과 유사한 극시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는 점(Kang et al., 2013, p. 513; Song, 2014, p. 53)은 음악에 대한 그의 지식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음악교육을 누가 담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온』에서는 음악가에게 지식이 없음을 밝히고, 『국가』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어 철학자가 음악과 음악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아님 철학자가 음악교육의 전문가라는 것을, 이상국가의 음악교육을 담당해야 할 주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철학자 음악가

『법률』 7권에서 플라톤은 아테네인의 입을 빌어 자신의 사상을 피력한다. 즉, 음악가들이 이상국가로 진입하고자 할 때, 이들을 엄격하게 검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자신을 비롯한 철학자들을 이상국가의 음악가들로 소개하고 있다.

아테네인: 진지한 음악가들이라고 불리는 비극작가들은 어떨까요? 그들 중 몇 명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도시와 나라를 방문해도 됩니까, 우리의 작품을 가져가도 됩니까?” 이 영감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옳은 대답이 될까요? 내 생각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비극작가들이며,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창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정치체제 전체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삶을 모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가장 참된 비극작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장르의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이며, 가장 훌륭한 드라마의 예술가이자 배우로서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Plato, 2016, pp. 368-369)

이로써 『국가』에서의 암시적인 주장은, 『법률』로 오면서 명시적으로 변한다. 다시 말해, 플라톤은 『국가』에서 철학자가 음악과 음악교육의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이며, 음악교육을 담당해야 할 주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밝힌 반면, 『법률』에 와서는 철학자가 스스로를 음악가라고 선언하며 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변치 않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존의 음악가들을 지식을 갖춘 집단이 아닌 ‘신들의 영감을 받은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플라톤의 초기 작품인 『이온』에서 시작되어 중기 작품인 『국가』, 그리고 후기 작품인 『법률』까지 플라톤 사상 전체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주장으로서 음악가들의 지위를 부정하려는 플라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4) 딜레마의 해명

플라톤 음악교육사상의 첫 번째 딜레마를 분석함으로써 이상국가의 음악교육은

철학자가 담당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플라톤의 음악교육의 목적이 이성이 주도하는 조화로운 영혼의 형성인 이상, 이는 영혼을 돌보는 전문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플라톤 사상에서 그러한 전문가는 바로 철학자인 것이다. 한편 플라톤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음악가는 신적인 영감으로 활동하는 사람일 뿐 지식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철학자가 음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이상국가의 음악가임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우리는 플라톤 이상국가의 음악교육의 주체가 철학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두 번째 딜레마도 해결해 볼 수 있다. ‘누가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가?’라는 두 번째 딜레마는, 음악가들은 모두 모방적이지만, 음악 중에는 모방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상국가의 음악교육은 모방적이지 않은 음악, 즉 신에 대한 찬가와 훌륭한 인간에 대한 송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음악가는 모상의 모방자이므로 이러한 음악을 누가 만들고 연주하느냐는 딜레마가 도출된 것이었다. 『국가』 2, 3권에서 철학자가 음악의 전문가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밝힌 플라톤은 위에서 인용한 『법률』 7권에서 스스로 음악가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작품은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본받아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것이 바로 이상국가의 음악이며, 결국 이러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상국가의 음악가인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IV. 교육적 시사점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현대음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음악교육사적 측면, 음악교육철학적 측면, 음악교사론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음악교육사적 측면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과 그 영향은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플라톤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보에티우스에게 이어져 서양의 고중세 음악교육의 토대가 되었다. 플라톤의 음악교육은 이성이 영혼을 지배하도록 하는 훈련의 일환이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철학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회의 지배원리가 철학에서 신학으로 이동한 중세사회에서 음악교육이 신학에 종속된 이유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Min et al., 2010, p. 22). 그러나 플라톤의 영향은 중세에서 끝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음악이 방탕한 마음을 조장하기 쉽다는 근대 철학자 로크(J. Locke, 1632-1704)의 경고, 그리고 음악이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기에 어린이들의 교육에 해롭다는 프랑케(A. Franke, 1663-1727)의 경고는(Min et al., 2010, p. 24에서 재인용) 인간의 영혼을 염려하며 향락적인 음악들을 배제하려던 플라톤 주장의 연장 선상에 있다. 이성을 통한 지식추구만을 인정하는 강경한 주지주의를 내세웠던 플라톤의 그늘로부터 음악교육이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다. 독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음악교육에서 미적 감수성 함양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했고(Min et al., 2010, p. 33), 현재는 독일 특유의 지적발달 중시 풍조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은 자율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단계부터 음악의 미적 경험과 가치판단을 위한 교육이 실행되도록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있다(Ham et al., 2012, pp. 89-90, 107). 미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1950년대 이후 심미적 음악교육관이 형성되기 전에는 플라톤의 사상에서 비롯된 음악교육관이 미국에서 가장 주도적인 음악교육철학이었기 때문이다(Kwon, 1999, p. 3). 이처럼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2500여 년 전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본 논문은 서양음악교육사의 형성기에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론적 토대를 분석하고 규명하는 작업으로서, 음악교육사적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음악교육철학적 측면

1) 미국과 독일, 그리고 한국

선진국들의 학교 음악교육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미국의 통합음악교육 과정은 타 교과들과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면서 독자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고(Bang & Min, 2007, p. 238), 독일은 감각과 감정체험을 중시하는 초등단계를 거쳐 이론적 지식과 사고능력을 통해 음악 이해를 도모하는 등 학문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중등단계로 연계되도록 체계적인 음악교육과정이 제공될 뿐 아니라,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 중고등학교(Gymnasium)에서도 음악이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Min, 2007, pp. 2, 15-16).

반면 한국의 경우, 2015 개정 중등 음악과교육과정에서는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전인적 인간의 육성이라는 목표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현실적 여건은 요원한 상태이다. 시수가 축소된 제6차 교육과정, 2007년의 평가기록방식 변경, 예술교과군으로 분류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입시 위주 과목만 공통과목으로 부활된 2015 교육

과정 개정안을 차례로 거치며 학교 음악교육은 지속적으로 위상이 하락하였고, 학습자의 무관심과 음악교사의 역할 축소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2015, p. 228).

물론 이러한 난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은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 학교 교육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교과와 본질을 규명하는 작업, 즉 교육철학을 재정립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리머와 엘리엇의 철학도 확산될 수 있었다(Min et al., 2010, pp. 63-65). 이들은 논쟁과 상호보완의 과정을 겪으며 심미주의, 실천주의, 그리고 경험주의라는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교육철학을 낳았고, 현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여 현대 미국 학교음악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독일의 현행 학교음악교육에서도 루소의 자연주의, 그리고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근거한 철학적 영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Min, 2007, p. 16).

2) 플라톤 음악교육사상의 철학적 가능성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다양한 음악교육철학이 학교 교육 현장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얻은 피드백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실용적인 이론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거듭되면서 비로소 학교 음악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음악교육의 의미를 축소하려는 현 상황의 시도 앞에서 음악교육의 본질적 의의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철학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가 이론적 근거가 되어 실제 학교 음악교육 현장과 결합하게 될 경우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전인적 인간 육성이라는 목표와 학교 음악교육 현장과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 탐구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이 위기의 돌파구를 열어줄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톤에게 음악은 여러 개별교과 중 하나가 아닌, 인간의 영혼을 빚어나가는 첫 단계의 필수 교과목이었고 결코 다른 과목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음악 안에 인간의 영혼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로소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논의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플라톤은 다른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음악교육을 주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교육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조화로운 영혼이 형성되고, 비로소 수학, 변증술 등 다른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2015년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전인적 인간육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구체적

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행과제는 다름 아닌 철학적 접근에 대한 성찰이다(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6, p. 160).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3) 음악교사론적 측면

음악교사의 자질은 학교음악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음악교육학 내부에서 음악교사론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성경희(Sung, 1988, pp. 293-298)는 인품과 음악적 능력, 교육 전문직 수행능력을 음악교사의 자격으로 논하였고, 호퍼(C. Hoffer) 역시 훌륭한 음악교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며,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뿐만 아니라 음악적 지식과 기술을 철저히 연마한다고 해설한다(Hoffer, 2001, pp. 57-82). 한편, 미국음악교육자협회(MENC)와 미국음악대학협회(NASM)에서는 각각 음악교사의 자질을 일곱 가지로, 전문적 교수기준을 위한 미국이사회(NBPTS)에서는 여덟 가지로 요약하였는데⁵⁾,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는 호퍼와 성경희가 논한 요건인 인품, 음악적 능력, 그리고 직무 전문성은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인품을 가진 교사가 탁월한 음악 능력과 직무 전문성을 겸비한다면 우리는 그를 훌륭한 음악교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음악교사가 왜 훌륭해야 하는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음미하도록 유도한다.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은 그의 당대까지 그리스인들의 음악교육을 담당하였던 음악가들의 역할을 철학으로 대체하려던 시도였다. 따라서 기존의 음악가는 추방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철학자가 음악을 교육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이상국가에서 철학자는 곧 통치자이다. 이 지점에서 음악교육의 권위가 곧 국가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위와 진리를 인식하는 학문적인 권위와 일치한다는 점과, 개별교과의 지식전달이 아닌 인간의 영혼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하여 최고의 지성을 연마한 집단이 음악교육을 위해 나선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이상국가에서 인간의 영혼을 형성하는 첫 단계는 음악교육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플라톤은 음악교사의 지위와 역할에 이러한 절대적 중요성을 부여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본 논문은 음악교사론까지 포괄하여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총체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특히 플라톤의 논의에서 절대적으로 고양된 음악교사의 지위는 음악교사론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음악교사가 가져야 할 자긍심의 근원이 되며, 탁월한 음악능력과 전문성 확보

5) 민경훈 외(Min et al., 2010, pp. 386-387, 399-400)에서 재인용.

과정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V. 결론

본문에서는 플라톤의 『국가』를 중심으로 그의 초기 작품인 『이온』, 『크리톤』,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후기 작품인 『법률』을 동시에 검토하며 그의 사상에서 비롯되는 딜레마를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에 주목하였고, 이성의 함양을 통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음악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계발하고자 하였다. 그는 좋은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쁜 음악이 영혼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에토스론에 입각하여 노랫말과 선법, 리듬, 악기 등에 각각 철저한 규제를 가하였다. 이에 따라 플라톤의 음악교육에는 신들에 대한 찬가, 훌륭한 사람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 도리아 선법과 프리지아 선법, 우아하고 단순한 리듬, 리라와 기타라만이 사용되게 된다. 그러나 그의 음악교육사상은 이 에토스론의 실현에서 그치지 않는다.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이 단순한 한 개별 과목의 담당자가 아닌 인간의 영혼 형성의 최초시기를 책임지는 극도의 중요성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음악가들이 이 역할을 맡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플라톤은 이들이 이데아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모상의 모방자일 뿐이며 신들린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이 영혼의 열등한 부분인 감정과 욕구만 자극할 뿐 가장 훌륭한 부분인 이성을 훼손하는 자들이라며 비난한다. 이어 플라톤은 철학자들이 영혼을 돌보는 전문가들이며, 음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참된 음악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음악가들임을 내세워 기존의 음악가들이 누려온 지위를 철학자들이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국가』 내부의 논의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온』과 『법률』을 통해 좀 더 넓은 시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감정과 이성을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킨다. 이성으로 무장되어야 할 인간의 영혼을 음악가들이 황폐화시킨다는 것이 플라톤의 진단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음악교육사상에 미적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음악을 철학에 끊임없이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Rosen, 1988, p. 14). 리머의 심미주의 음악교육철학 등 현대 음악교육철학사에서 이정표를 세웠던 중요한 흐름들이 플라톤의 입장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등장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플라톤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현대 음악교육철학의 생성배경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플라톤에 대한 반성과 성찰뿐만 아니라 이 사상에 담긴 중요한 함의를 포착하여 이를 실제 학교음악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플라톤은 인성발달 등 다른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부차적인 수단으로 음악교육을 주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교육의 결과로서 인간에게 조화로운 영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는 음악교육을 축소하고 다른 가치와 목표에 음악교육을 종속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국내의 현실에서 음악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방어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철학적 토대가 될 것이다. 전인적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는 현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접근에 대한 성찰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6, p. 160).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철학자가 통치와 음악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음악교육의 권위가 곧 국가를 통치하는 권위와 진리를 인식하는 학문적인 권위와 일치한다는 점과, 개별교과의 지식전달이 아닌 인간의 영혼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하여 최고의 지성을 연마한 집단이 음악교육을 위해 나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절대적인 음악교사의 지위는 음악교사론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음악교사가 가져야 할 자긍심의 근원이 되며, 탁월한 음악능력과 전문성 확보 과정에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플라톤은 음악교사의 지위와 역할에 이러한 절대적 중요성을 부여한 가장 영향력있는 사상가였다.

본 논문은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을 에토스론에 국한시키지 않고,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이 담긴 여러 대화편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후 현대 중등음악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 시도였다. 이를 통한 플라톤의 음악교육사상의 심도있는 이해로 앞으로 음악교육철학, 음악교사론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Reference

[Book]

- Bowman, W. D. (1998).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usic*. Trans Seo, W. J. Seoul: Kachibooks.
- Grout, D. J., Palisca, C. V., & Burkholder, J. P. (2009). *A history of western music*.

- Trans Min, E. G., Oh, J. H., Lee, H. K. Seoul: E&BPlus.
- Ham, H. J., Seung, Y. H., Kwon, D. W., Jeong, J. E., Choi, M. Y., Moon, K. S., Choi, E. S., Seog, M. J., Chung, J. W., Oh, J. H. (2012). *World school music curriculum*. Paju: Kyoyookbook.
- Havelock, E. (2011). *Preface to plato*. Trans Lee, M. H. Seoul: Geulhangari.
- Hoffer, C. (2001). *Music education theory*. Trans An, M. J.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Kang, S. H., Kang, C. U., Kim, D. O., Kim, Y. S., Kim, I. G., Kim, J. I., Kim, H., Park, H. Y., Son, Y. R., Yu, H., Lee, G. B., Lee, J. H., Chun, H. S., Cheong, J. Y., & Choi, H. (2013). *Western ancient philosophy 1*. Seoul: Gil.
- Ladnells, J. (1999). *Music in ancient Greece and rome*. New York: Routledge.
- Min, E. G., Park, E. M., Oh, I. D., & Lee, N. J. (2014). *A history of western music 1*. Seoul: Eumaksekye.
- Min, K. H., Kim, S. Y., Kim, Y. H., Bang, K. J., Seung, Y. H., Yang, J. M., Lee, Y. K., Rim, M. K., Jang, K. B., Cho, S. I., Ju, D. C., & Hyun, K. S. (2010).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Plato (2013). *Republic*. Trans Chun, B. H. Paju: Booksoop.
- ____ (2014). *Ion kratylos*. Trans Chun, B. H. Paju: Booksoop.
- ____ (2016). *The Laws*. Trans Chun, B. H. Paju: Booksoop.
- ____ (2020a). *The Apology of Socrates*. Trans Kang, C. U. Paju: Acanet.
- ____ (2020b). *Criton*. Trans Lee, G. B. Paju: Acanet.
- Rosen, S. (1988). *The quarrel between philosophy and poetry: Studies in ancient thought*. New York: Routledge.
- Slings, S. R. (2003). *Platonis rempublicam / Recognovit brevisque adnotatione critica instruxit S.R. Sling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runk, O., & Treitler, L. (2002). *Source readings in music history*. Trans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Seoul: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 Sung, G. H. (1988). *Music education theory*. Seoul: Gabeul.
- West, M. L. (1994). *Ancient greek music*. Oxford: Clarendon Press.

[Research Paper]

- Annas, J. (1998). Plato on the triviality of literature. In Smith, N. D. (Ed.), *Plato: critical assessments* (pp. 273-295). London: Routledge.

- Bang, K. J., & Min, K. H. (2007). A study on the integrated music curriculum in the U.S.A. *Nangman Quarterly*, 19(2), 195-243.
- Cho, K. A. (2010). A study of developmental history of church mode -From ancient Greece to 16th centuries. *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19, 69-120.
- Choi, E. A. (2019). An analysis of Korean research trends in B. Reimer's music education theor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 173-195.
- Halliwell, S. (2011). Plato. In T. Gracyk, & A. Kania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philosophy and music* (pp. 307-316). London: Routledge.
- Kim, C. M. (1993). Plato's republic and music. *Nangman Quarterly*, 20, 77-112.
- Kim, J. P. (1990). A study on the thought music education by confucius and plato.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9, 149-187.
- Kim, N. D. (2007). Plato's understanding of art. In publication of the Korean companion to aesthetics (Ed.), *History of aesthetics* (pp. 55-79).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Kwon, D. W. (1999). A study on bennett reimer's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18, 81-98.
- Kwon, H. S. (2012a). Mimesis und kunste in platon politeia. *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69, 1-48.
- Lee, S. C. (2007). The philosophers' thoughts of music education in ancient Greece and China.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0, 151-168.
- Min, K. H. (2007). An analytical study o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5(1), 1-18.
- Min, K. H. (2019). Prospect and tasks of music educa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 53-74.
- Park, E. S. (2001). A comparison of Benett Reimer's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and David Elliott's music matter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 53-73.
- Song, E. R. (2014). Mimesis of virtue: Plato's reform of poetry.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121, 51-77.
- Suh, S. W. (1992). Plato's criticism of art and poetry in the republic x. *The Journal of Greco-Roman Studies*, 6, 61-95.
- _____ (1993). Can plato's critique of poetry be justified? *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18, 143-158.

[Thesis]

- An, E. J. (1997). *A study on the platon's thought of music education*.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 Baek, S. A. (2006). *A study on educational ideas in ancient music: Focusing on the Greek 'Ethos theory' and the Chinese Yueh Chi(樂記)*.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Bang, H. J. (1998). *Music education before the medieval times*. Master thesis, Chonnam University.
- Cho, H. S. (2013). *A study of the meaning of plato's theory of music education on the modern music education*. Master thesis, Dankook University.
- Jun, H. C. (1985). *A study on the platon's thought of music education*.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Kang, Y. J. (2010). *A study on the music education and the idea of ancient Greece*. Master thesis, Changwon University.
- Kim, H. R. (2003). *A study about fairness of Greek ethos theory in educating music in school*.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im, J. J. (1994). *Philosophy of ancient Grrek's music education*. Master thesis, Kyunghee University.
- Kim, J. P. (1986).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oughts of music education between confucius and plato*.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 Kim, K. A. (1989). *A study on thought in music education of ancient philosophers: Confucius, plato and aristotle*.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K. H. (2010). *The meaning of 'Narrative experience' in elementary education: based on plato's educational theory of mousike*. Master thesis, K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won, J. H. (2012b). *The study for antient Greeks ethos theory and the twenty-first century school education of music*.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Lee, H. S. (2009). *Plato and fröbel's an education for whole man investigation*.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Lee, M. R. (1993).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oughts of music education between confucius and Plato*.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 Lee, Y. R. (2010). *Integrated music education that applied ethos theory of platon to it*. Master thesis, Kyunghee University.

- Lim, Y. H. (2011). *An educational interpretation of mousikē in Plato's the republic*.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Moon, T. S. (2001). *Plato's educational theory of mousike: The status of teacher in the process of acquiring knowledge*.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Moon, Y. S. (2000). *The influence of Plato's thought of music education on modern music education*. Master thesis, Hanyang University.
- Park, H. G. (2009). *The music education model for creativity development with the application of plato's ethos theory: Focused on the 7th curriculum of high school*. Master thesis, Chongju University.
- Park, I. A. (2010). *A study on the thought of ancient Greek music education: Focused on the music education of pythagoras and platon*. Master thesis, Keimyung University.
- Son, H. S. (2008). *A study on educational ideas in ancient Greece music*. Master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Yu, J. W. (1995). *Modern significance on the concept of ancient Greek music*. Master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Yun, Y. D. (1998). *Peri tes harmonias tes mousikes kai tou ethikou en te paideia tou platonos*.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ther]

-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2015). The position of the music and art 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3), 227-228.
-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6). Semina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subject education and tasks according to the future social change in 2030.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p.160.